제주공항 마비 부른 비행물체 비상용화 드론 무게

경비요원 3명 "화물청사 상공서 드론 2대 명확히 식별"
사건 당일 풍등 날린 60대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 입건

올해 9월 제주국제공항 상공에 출현해 공항 마비 사태를 일으킨 미확인 비행물체는 정식 출시되지 않은 드론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2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소속 경비요원 3명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9월 13일 오후 9시 무렵 제주공항 인근 상공에 출현한 미확인 비행물체가 초경량비행장치(드론)라고 진술했다.

이들은 경찰에 당시 제주공항 여객청사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00m 떨어진 화물청사 인근 상공에서 검은색을 띠는 드론 2대를 잇따라 발견했다고 진술했으며, 풍등이나 다른 비행물체를 드론으로 착각한 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요원들은 일치되게 공항 화물청사 상공에서 드론을 목격했으며, 육안으로 드론의 기체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풍등을 드론으로 착각하거나, 드론으로 추정된다는 수준의 진술이 아니라 명확히 드론이었다는 게 경비요원들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13일 오후 9시 무렵 제주공항 화물청사 쪽 상공과 남북활주로 북쪽 상공에서 불빛을 반짝이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잇따라 출현해 이날 오후 9시17분부터 오후 10시5분까지 항공기 이·착륙이 48분간 전면 중단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공항 근처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사건 당일 남북활주로 북쪽 방향에 있는 제주시 용담동 어영공원 인근 주차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풍등을 날리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기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법은 공항 반경 9.3㎞ 이내에서 허가 없이 풍등을 날리는 걸 금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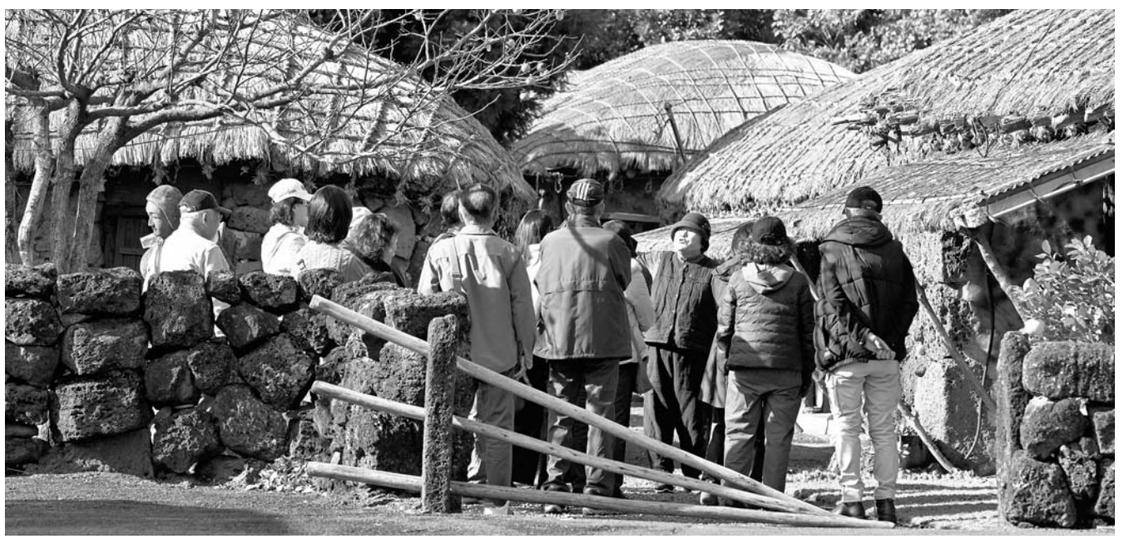
화물청사 쪽에서 나타난 비행물체가 드론이라는 진술이 나왔지만 이런 진술을 증명할 물증은 없는 상태다. 사건 당일 남북활주로 인근에선 풍등이 떠다니는 모습이 CCTV에 찍혔지만 같은날 화물청사 쪽에서 출현한 비행물체는 CCTV 상으로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항공사는 경비요원들 진술과 '불법 드론 탐지기'에서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당시 출현한 비행물체가 정식 출시되지 않은 드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불법 드론 탐지기는 레이더 화면상으로 비행물체가 나타나고 드론 비행 주파수가 탐지되면 경고음을 울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 장비는 제조사가 정식 출시해 상용화 한 드론만 탐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잡아낼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공항공사 제주공항 관계자는 "상용화 된 드론의 주파수는 탐지기에 대부분 등록되어 있어 공항 인근에 출현했을 경우 잡아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비상용화 드론은 탐지할 수 없다"며 "사건 당일 드론 탐지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면 당시 경비요원들이 목격한 드론은 정식 출시되지 않은 기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초가가 신기한 관광객들 2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초가 앞에서 마을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강희만기자

5일 제주서 전국 응급의료 전문가 심포지엄
제주·충북 응급의료지원단 성과·사례 공유

전국의 응급의료 전문가들이 제주에서 도내 응급의료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응급의료 정책을 공유하고 제주지역의 응급의료 발전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2024년 지역 응급의료 발전 심포지엄'을 5일 제주시 연동 소재 호텔 시리우스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응급의료지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도내 응급의료기관과 국립중앙의료원, 소방,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관련 학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 응급의료체계와 정책을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주제 발표와 응급의료 전문가 및 의료인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도와 충청북도는 '응급의료지원단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제주소방안전본부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는 '기관별 운영 현황과 역할·과제'를 발표한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내 응급의료정책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성중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좌장으로 하는 패널 토론에서는 '지역 응급의료 과제, 연계·협력 방안'을 주제로 응급의료 전문가, 의료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응급의료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강동원 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의료대란 등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제주지역의 의료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헌혈의집 신제주센터 노형으로 확장 이전

헌혈의집 신제주센터가 이마트 신제주점과 롯데마트 사이에 위치한 청원빌딩으로 확장 이전한다.

대한적십자사 제주도혈액원은 오는 4일 헌혈의집 신제주센터가 개소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신제주센터는 2018년 개소 후 지난 7년 동안 6만명의 헌혈자가 방문했으나 시설 노후화와 헌혈자 감소로 환경개선과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제주혈액원은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헌혈 참여와 헌혈자 증진을 위해 신제주센터를 제주 최대 규모 헌혈의 집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이전 장소로 제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노형동을 결정했다.

제주혈액원 관계자는 "채혈 침대를 교체하고 헌혈자 대기 및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헌혈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헌혈의 집 이전으로 헌혈자 증진과 혈액 수급 안정화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남녘 서귀포에도 도로 열선 3개소 가동

동홍동 이어 중문·대천동 추가
내년엔 신시가지 등 3개소 계획

서귀포시지역 도로 열선 가동 구간이 올겨울 3개소로 늘었다. 내년에는 신시가지 중산간도로 등에 도로 열선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목표다.

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겨울 폭설기에 가동될 도로 열선 구간은 지난해 12월 준공한 동홍동 내리막길(동홍사거리~주공2단지) 200m에 이어 올해 신규로 설치한 중문동의 중문성당~천제연폭포 주차장 입구 220m, 대천동의 대천동 주민센터 앞 240m 등 3개소다. 중문동과 대천동의 도로 열선 공사에는 주민참여예산 총 4억원이 투입됐다.

서귀포시는 지역에서 처음 설치했던 동홍동 시범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100m당 공사비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도로 열선을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에도 우선 3개소 공사를 계획했다. 해당 지역과 예상 사업비는 신시가지 일주도로~중산간도로 2.6㎞(26억), 서호초등학교 구간 0.3㎞(3억), 솜반천 사거리 0.5㎞(5억)이다. 이들 3개소의 경우 당초 2025년 예산안 편성을 추진했으나 무산되면서 내년 1회 추경 등 추후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서귀포시는 자동 제설 시스템인 도로 열선 대상지를 선정할 때 차량 통행량, 지역 민원, 제설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한다고 했다. 다만 상습 결빙 구간이더라도 자동 염수 분사 장치 등 제설 장비가 이미 구비된 곳은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내년에 예산 확보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구간부터 도로 열선 공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덤프트럭 끼임 사고 60대 사망

제주에서 15t 덤프트럭에 끼이는 사고로 60대가 숨졌다.

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8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공사장에서 덤프트럭 정비 중에 60대 남성의 몸이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남성은 차량 바퀴와 연료 탱크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구조 후 심정지 상태로 서귀포시내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